

# ‘교사 노트북 해킹’ 대동고 학생 퇴학·0점

### 교장, 한달만에 사과...“재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이철수 교장 “보안·관리 감독 부실 지적 통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노트북 해킹 수법으로 답안지를 빼내 시험을 치른 고교생 2명이 ‘퇴학’·‘전과목 0점’ 처리됐다.

학교장은 사건 인지 한달여 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과 학생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철수 대동고 교장은 17일 오전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교 학생들의 시험 유출 사건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며 교직원들도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 “생활교육위원회가 해당 학생들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했다”며 “재심청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2학년 1학기 1·2차 지필평가에 대한 두 학생의 성적은 전과목 ‘0점’ 처리할 예정이며 재시험은 치르지 않는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2명의

공모자가 없고 재시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한밤 중 교무실 무단 침입과 교사 컴퓨터 해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보안 관리 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장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강화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 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직원·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을 대상으로 심리분석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무실을 포함해 교사동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정상화 했다”며 “보안에 대한 교직원 연수와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학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폭력처벌법



17일 오전 광주 서부 광주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이철수 대동고등학교 교장이 ‘학생의 교사 노트북 해킹 커닝 사건’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2학년 학생 2명이 중간·기말고사를 앞두고 교무실에 침입해 뒤 교사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답안을 빼내 시험을 치렀다.

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밤 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해 출제교사 노트북 10여 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환기자



### 완도해경,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 현장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지리해수욕장 등 5곳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담양소방,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관계자 화재예방 간담회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2일 담양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예방안전팀장 등 소방 관계자 6명, 산단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양소방 생활안전순찰대, 찾아가는 119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진원면 망덕마을을 찾아가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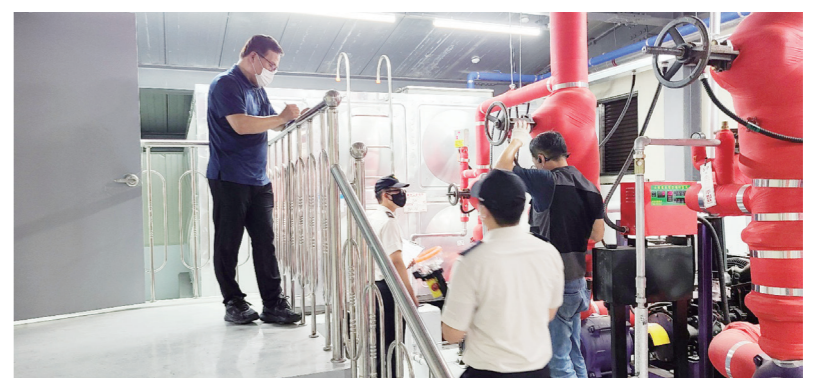
광양=기동취재본부



### 여수소방, 추석 연휴 대비 취약대상 현장 방문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10일 여수소방서장이 추석 연휴 대비 관내 취약대상인 아쿠아리움과 예술마루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합동점검

광주 동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관내 전통시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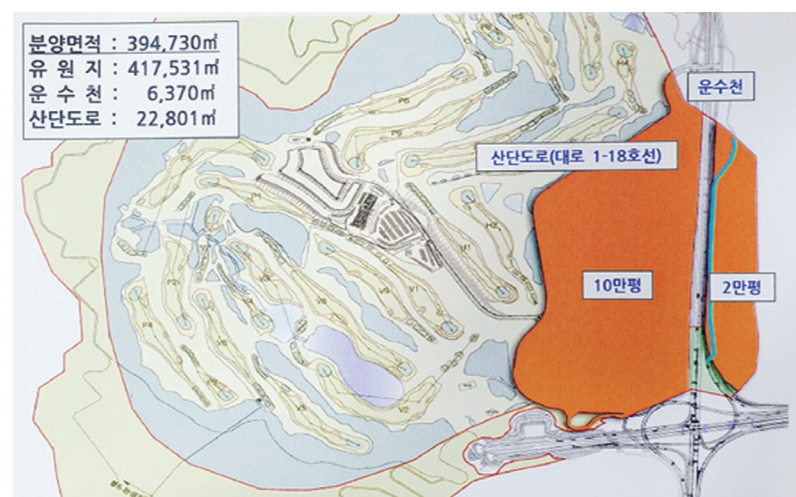
### 나주경찰, ‘선진 교통 문화정책’ 위한 현장 찾아가는 교통간담회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사무소에서 금천면장 및 이장단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 17년째 표류 어등산 개발사업 걸림돌은 건설사와의 소송전

### 광주시 VS (주)서진건설...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행정소송 중



17년째 표류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현재 진행형인 (주)서진건설과의 소송전이다. 법정 다툼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출발했다. 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

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여러 차례 진통 끝에 2019년 7월 서진건설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올랐지만, 협상 과정에 갈등이 불거졌으며 급기야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광주시는 2020년 서진건설과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다.

광주시는 이를 수용, 서진건설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관련 협상을 다시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령을 최종 취소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처분에 서진건설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는 (주)서진건설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사실상 광주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오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이번 승소와 함께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깃들여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

소했다. 항소심은 현재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2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의 상고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에까지 맡겨질 경우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는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軍)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경관녹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17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어떤 형태로든 서진건설과의 소송전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정상화하는 가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이남 어등산 부지에 정통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광주시와 서진건설과의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이슬기자



### 개방 100일 맞은 청와대 영빈관 들어가는 시민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 목포·영광 해상서 시신 잇따라 발견

목포와 영광 해상에서 시신이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7분께 목포대교 인근 해상에 남성이 숨겨 있는 것을 선박의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동원해 시신을 인양한 뒤 지문 등을 채취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최근 목포대교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과 동일 인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추정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인양했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과 함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광=서희권기자